WWW.KMI.RE.KR

제 215호 · 2013년 8월 1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임진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나이지리아, 환적 물류지로 조명

물류정책·사업동향
1. 중국 정주, 독일 함부르크까지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작
2. 중국 북경 2/4분기 물류산업 수요 안정 및 평균 임대료 소폭 상승
3. 스위스-프랑스를 연결하는 CEVA 철도 프로젝트
4. DHL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에 1,080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물류시장동향
1. Nippon Express, 멕시코 항공화물 서비스 개시
2. Cathay Pacific, 남아메리카 항공화물 시장 진출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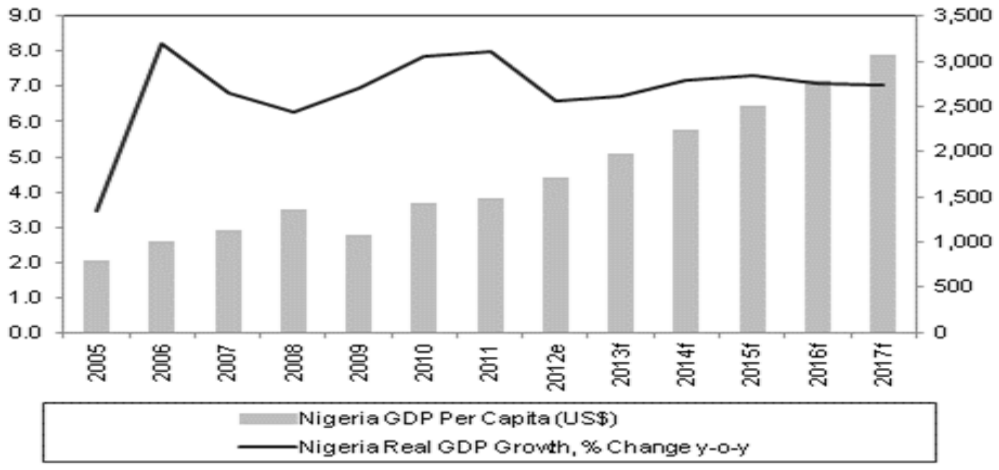
글로벌물류이슈

□ 나이지리아, 환적 물류지로 조명

○ 아프리카 국가 중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떠오르는 소비시장으로 관심을 받음
- 나이지리아 내에는 자동차 산업시설이 있으나 수요에 비해 10% 정도의 가동능력 밖에 없어 대부분의 자동차 수요를 전량 수입차로 대체
- 나이지리아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물류의 보조적 역할이 필요함
- 또한 나이지리아는 내륙국가들의 해외 수출입을 위한 물류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완성차 수입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입 하기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설비 업그레이드도 필요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소비시장 형성이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나타냄
- 나이지리아의 1인당 GDP 성장률은 2013-2017년 간 평균 7.1%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구증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2013년 1인당 GDP는 2,015 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3,154달러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나이지리아 1인당 GDP 및 실질 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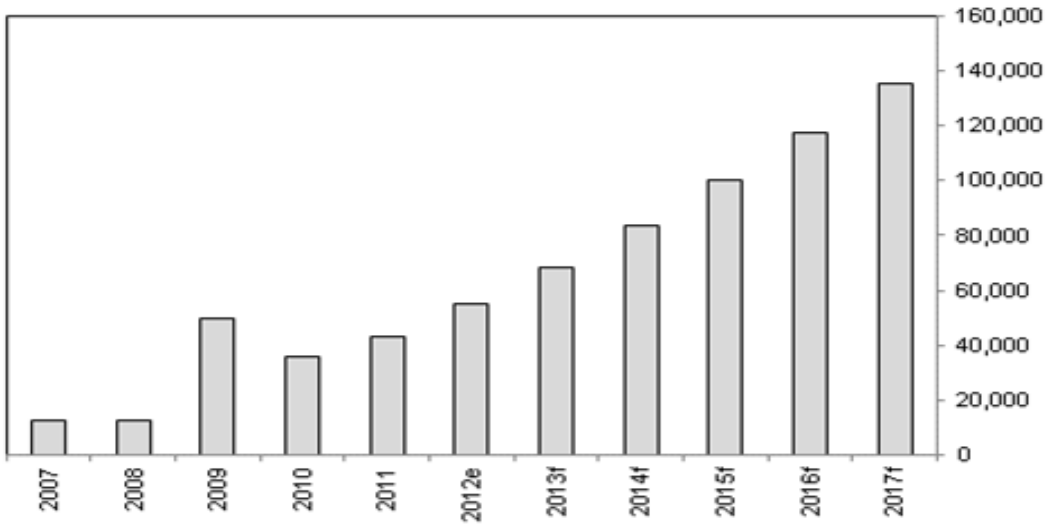
자료 : 나이지리아 은행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BMI 추정

○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 전망이외에 실업률이 높은 부분도 감안 해야함
- 2013년의 실업률은 전체인구의 약 23.6%가 될 것으로 추정

○ 나이지리아의 자동차 시장은 2007-2012년 간 약 347.8% 성장을 보였으며 자동차 증가량도 12,300대에서 55,075대로 늘어남

-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성장 추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되면서 2017년까지 135,471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 나이지리아 자동차 시장 성장 >



자료 : BMI 추정

○ 나이지리아의 국가 자동차 위원회 위원장은 나이지리아의 자동차 산업 생산 능력이 자동차 수요의 약 1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자동차 산업성장의 필요성을 제시함

- 자동차 수요가 증가되면서 자동차 생산 제조업과 관련된 기타 산업들의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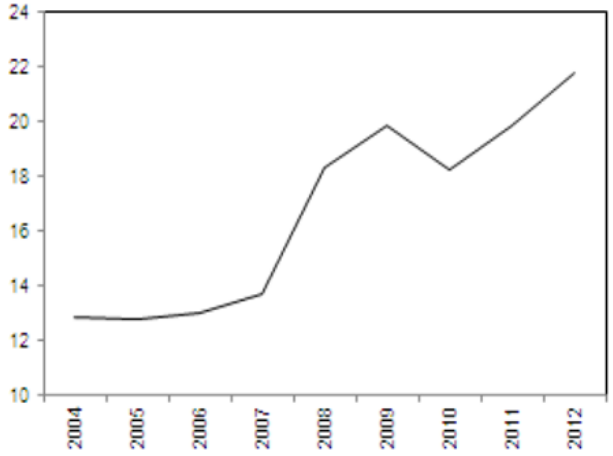
○ 항만의 자동차 물량 처리를 위한 시설 설비가 필요하며 조립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류단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물류단지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활성화 한 후에 다른 산업 분야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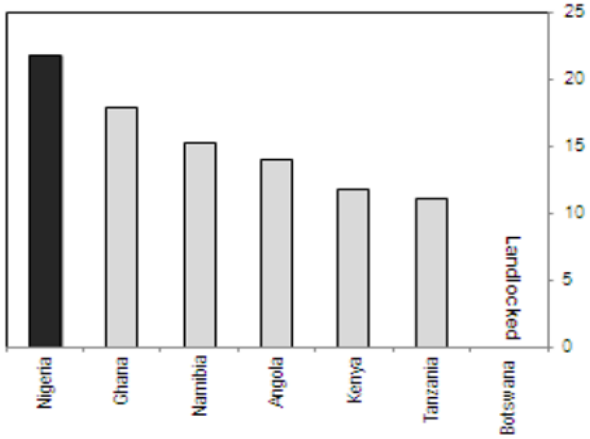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시장에 관심 있는 GTO들이 진출 하고 있으며 이중 APMT와 ICTSI가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UNCTA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정기선사 연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사하라 이남 7개 국가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나이지리아 선사 연계 >



< 지역 선사 연계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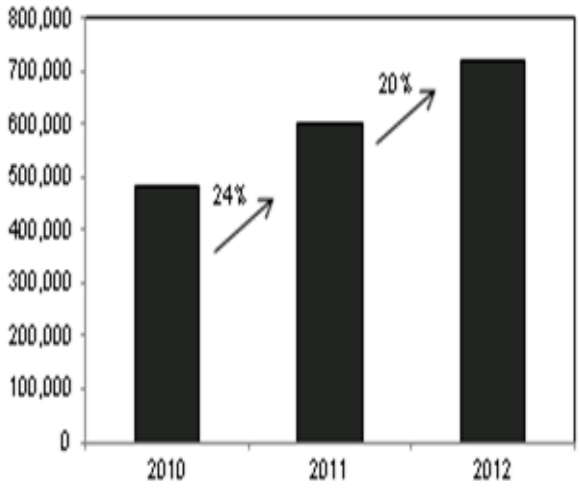


자료 : APMT, Bollore, Port Authorities, BMI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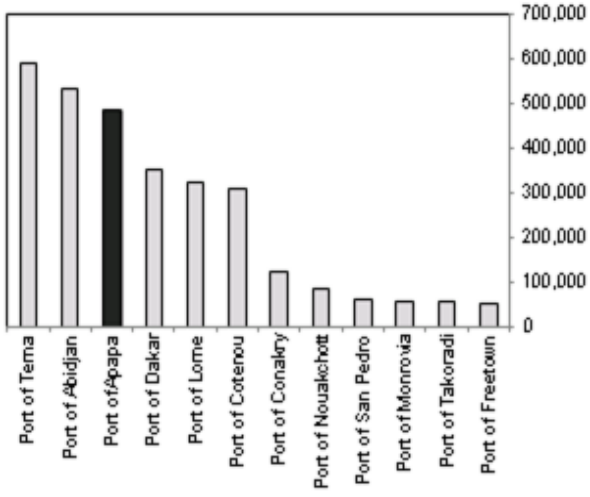
o 나이지리아의 Apapa항만의 물동량이 성장하면서 항만 확장이 필요하나 라고스-나이지리아의 주요 상업도시에 근접해 있어 토지 수용 및 배후 도로 연결 등의 문제가 있음

- 라고스에 항만 계획이 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음
- UNCTAD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항만 물동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9.3%가 증가하였으며 물동량은 72,500TEU에서 101,007TEU까지 늘어났음
- Apapa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2011년에 60만 TEU를 처리했으며 운영사인 APMT는 2012년에 72만 TEU를 처리하였다고 발표함
- 이는 연간 약 20% 성장률로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처리량이 많은 항만중 하나임

< Apapa 컨테이너 터미널 물동량 증가 >



< 2010년 서아프리카 항만 물동량 처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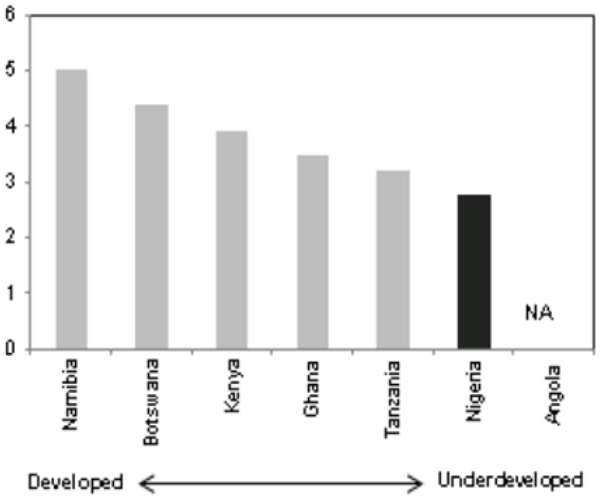


자료 : APMT, Bollore, Port Authorities, BMI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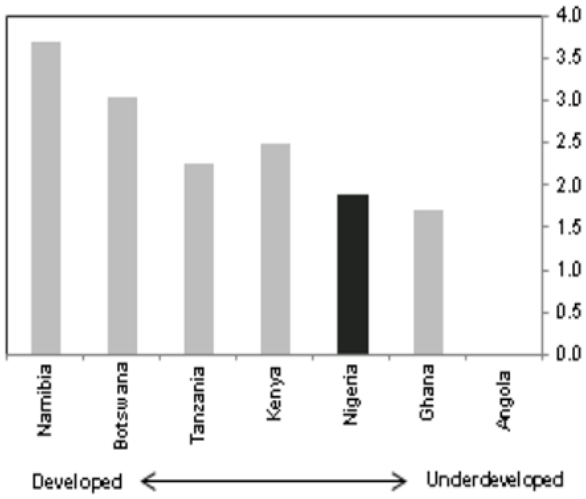
○ APMT는 2018년까지 라고스 항 물동량이 200만 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시설설비 부족으로 인한 항만의 적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
- 새로운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음
- 신규 항만은 Lekki와 Badagry에 개발 될 예정이며 각각 ICTSI와 APMT사가 운영할 것으로 발표
- 두 개의 신규항만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능력을 높이며 물동량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ICTSI사는 2015년까지 연간 18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 개발을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600만 TEU 처리능력까지 높일 것으로 목표함
- Badary 항만은 메가 항만으로 Badagry 자유무역지대에 인접하며 터미널 개장은 2016년으로 계획
- 아울러 Badary 항만은 베냉과 라고스를 잇는 고속도로에 연결 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예정

○ 다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나이지리아의 국내 도로와 철도 개발은 미숙한 상태임
- 나이지리아는 국내 물류 네트워크 개발과 동시에 내륙국가의 원활할 해상 수출입 활동을 위하여 항만 개발 및 도로, 철도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함

< 도로 인프라 비교 >



< 철도 인프라 비교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BMI 정리

○ 물류 환적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이지리아는 기타 다른 동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보다 발전 속도가 늦을 수 있으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활성화 된다면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특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3.7.11.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물류정책·사업동향

□ 중국 정주, 독일 함부르크까지 철도 운송 서비스 시작

○ 무역량 증가에 따라 정주(Zhengzhou)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서비스 개시
- 정주는 중국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해당지역의 사업 및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임
- 정주에서 함부르크까지 철도 운송로는 총 10,214km에 달하며 화물운송에는 약 18일이 소요되며 이는 해상 운송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임
- 해당제안은 이미 국무위원회의 지지를 받아냈으며 현재 국무위원회 각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또한 항공운송에 대비 80% 가까이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육상운송에 비해서도 TEU당 평균 489 USD의 비용절감을 절감할 수 있어 신비단길로도 불리는 유라시안 복합운송로를 통한 화물운송에 있어 철도운송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따라 신규 국제철도운송로를 이용한 중국 전제제품, 건설기계, 차량 및 부품, 의료기계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이 보다 빠르고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됨

○ 해당 철도운송로는 정주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시 및 폴란드를 경유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
- 중국의 정주내륙항개발은 운송경로 상 국가들의 철도사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요
- 정주에서 함부르크까지 국가별로 상이한 철도궤간으로 인해 2차례의 컨테이너 환적이 필요함
-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알라샨코우(Alashankou)에서 러시아의 광궤에 맞추기 위해서 환적이 이뤄지며, 두 번째 환적은 폴란드와 벨라루시의 국경에서 표준궤로 바꾸기 위해 발생함
- 독일 국가철도회사인 Deutsche Bahn의 산하인 DB Schenker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며 궤간 환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신규 국제철도운송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독일 간 무역 활성화 및 상호 산업의 발전 기대
- 중국-유럽 간 무역은 전년 상반기 대비 3%감소하여 2,591억 USD에 머물렀으나 중국은 여전히 독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2012년 상호무역액은 1,893억원에 달함
- 중국은 소비재를 독일로 수출하고 독일은 최첨단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중국과 독일의 상호의존 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최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반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억제하고 있음
- 독일은 녹색에너지, 생명의학, 고효율엔진, 신소재, 에너지절감제품,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있어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음
- 즉 중국과 독일은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쌍방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신규 국제철도운송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국 회사의 독일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로 양국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운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독일의 화학, 정보통신, 건설기계, 생명공학, 철강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인수하여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2012년 중국기업은 21억 USD를 투자하여 독일의 기업과 기술을 획득하였음
- 그에 따라 많은 제조기업들이 설비를 독일과 중국내륙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어 두 지역 간 물류와 화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3.7.19.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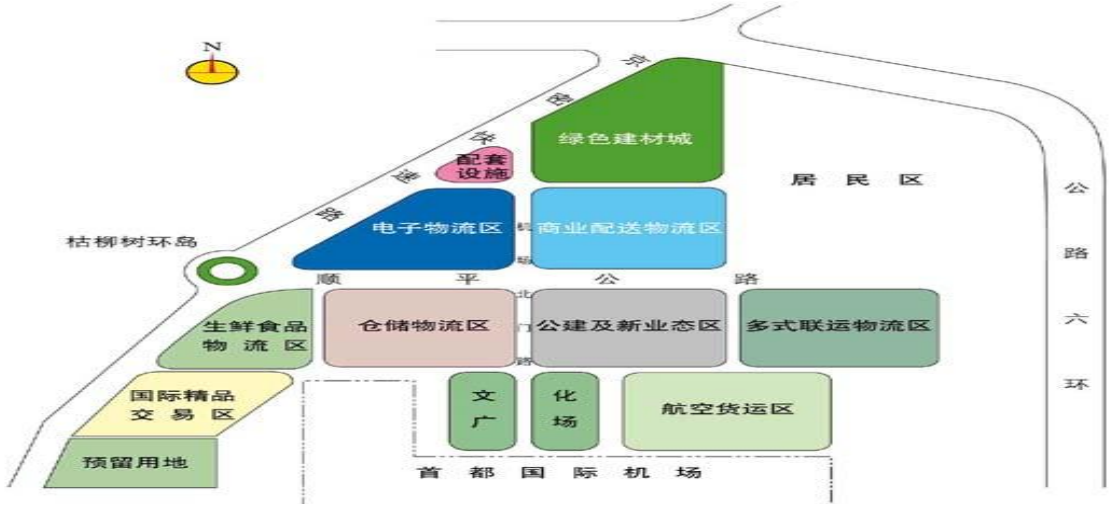
□ 중국 북경 2/4분기 물류산업 수요 안정 및 평균 임대료 소폭 상승

○ 북경 공업물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임대비용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북경통주물류원(北京通州物流园)에 위치한 Xiangrong(祥龙)물류는 2/4분기의 공급이 늘어나 약 3만평의 임차창고 면적을 추가 확장함

○ 북경시 물류산업의 물류부지 확보량이 2.3%증가하여 134만 평방미터로 증가
- 물류산업의 주요 수요원으로는 전자상거래, 3PL, 무역, 제약업체 등임
- 북경통주물류원의 공실률은 약 2.5%이나 북경경남물류항(北京京南物流港) 공실률은 3.8%로 이전보다 1.1% 상승함
- 그러나 연말까지 물류산업 임대료가 1평방미터 당 매월 36.2위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북경경남물류원 임대료는 약 2.2%가, 북경공항물류원(北京空港物流园)과 북경통주물류원의 임대료는 약 0.2%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가장 임대료가 비싼곳은 북경공항물류원임
- 북경공항물류원의 임대료는 1평방미터 당 매월 약 40.4위안으로 그리고 북경통주물류원은 39.3위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

○ 경제발전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물류원의 임대료는 당분간은 상승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 됨

< 북경공항물류원 조감도 >



자료 : www.chinawuliu.com

자료 : www.chinawuliu.com, 2013.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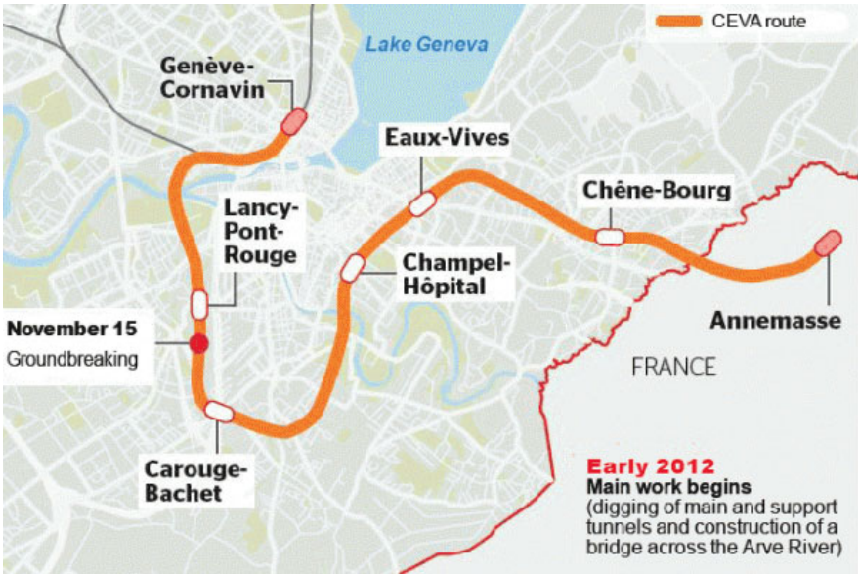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스위스-프랑스를 연결하는 CEVA 철도 프로젝트

○ CEVA(Cornavin-Eaux-Vives-Annemasse) 철도 프로젝트는 Mobility 2030 Master Plan of Swiss Canton Geneva의 일환으로 수도권 교통 시스템과 복합운송 강화를 목표로 함
- 본 프로젝트는 Canton of Geneva와 SBB/CFF(Swiss Federal Railways)의 합작투자로 진행
- CEVA 철도 공사는 2011년 11월에 기공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본 공사길이 16km 중 14km는 스위스를 통과함
- CEVA 철도는 제네바 Cornavin역과 프랑스 Annemasse역을 연결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약 20분의 이동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비용은 CHF 15억(약 16.2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의 57%는 스위스 연방 정부가 제공할 예정
- 본 공사는 2017년에 완료될 전망임

○ CEVA 철도는 Cornavin역과 Annemasse역을 포함한 7개 역을 연결함
- 본 공사는 Cornavin역과 Bachet-de-Pesay를 연결하는 SBB(CFF) Line 보수공사와 Arve강을 지나는 CFF Line, Champel Commune 아래를 통과하는 터널공사 등이 포함됨

< Cornavin-Eaux-Vives-Annemasse Route >



자료 : www.railway-technology.com

자료 : www.railway-technology.com, 검색일 : 2013.7.24.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 DHL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에 1,080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 DHL의 특송(Express) 사업부는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 확장을 위한 투자확대를 발표
- DHL 익스프레스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자회사 Birotika Semesta와 DHL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를 통해 현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현지 자회사를 통해 투자했던 평균금액의 세배 규모인 1,08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
- 인도네시아에서 DHL의 특송 서비스는 주로 고객사의 상품 견본이나 예비부품 등을 전 세계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음
- DHL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의 수석 기술고문인 Ahmad Mohamad는 DHL 익스프레스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소매 서비스부분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잠재시장으로써 자동차산업, 석유산업 및 가스산업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투자 확대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풍부한 사업 기회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토대로 잠재적 성장에 대한 낙관적 판단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됨

○ DHL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는 6곳의 새로운 소매지점 개장을 계획 중임
- DHL이 인도네시아에서 소매 서비스에 최초로 진출한 것은 2006년으로 매년 2자리수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투자계획에도 새로운 소매지점 6곳의 개장이 포함되어있음
- 이를 위해 배송차량 105대를 교체하고 인도네시아 남부 도시인 덴파사르(Denpasar)에 새로운 관문을 개장했으며, 물류 증가에 대비하여 수도 자카르타(Jakarta) 관문 시설을 보수하고 인도네시아 서부 도시인 메단(Medan)과 인도네시아 중부 항구도시인 발릭파판(Balikpapan)의 기존 시설도 재배치하였음
- 또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Soekarno-Hatta) 국제공항의 화물처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2,360㎡의 화물처리공간을 10,000㎡로 확장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물류시장에 대한 DHL의 투자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초 DHL Supply Chain(계약물류 사업부)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수년 동안 5,23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발표했음
- 투자의 바탕에는 인도네시아의 물류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인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국가 물류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물류비용이 높고 성장 전망도 밝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선진적인 물류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thejakartaglobe.com, 2013.7.18.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Nippon Express, 멕시코 항공화물 서비스 개시

ㅇ 일본 기반의 물류기업 Nippon Express는 새로운 항공화물 서비스를 개시

- Nippon Express는 소량 화물들을 멕시코 Guanajuato 국제공항으로 운송하기로 함
- 이를 통해 멕시코 Guanajuato 국제공항 인근도시(Leon, Irapuato, Salamanca, Celeya)도 새로운 서비스에 포함 될 것임을 발표
- Nippon Express는 2013년 4월, 멕시코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공 및 해상 운송이 더 활발하게 진행 중임

※ 멕시코 Guanajuato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Guanajuato주 Sialo도시에는 Guanajuato 내륙 항구, Silao 철도 터미널, 내륙 관세청, Santa Fe 산업단지가 모두 위치하고 있음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3.7.29.

고안나 연구원 (☎ 02-2105-2925, ako@kmi.re.kr)

□ Cathay Pacific, 남아메리카 항공화물 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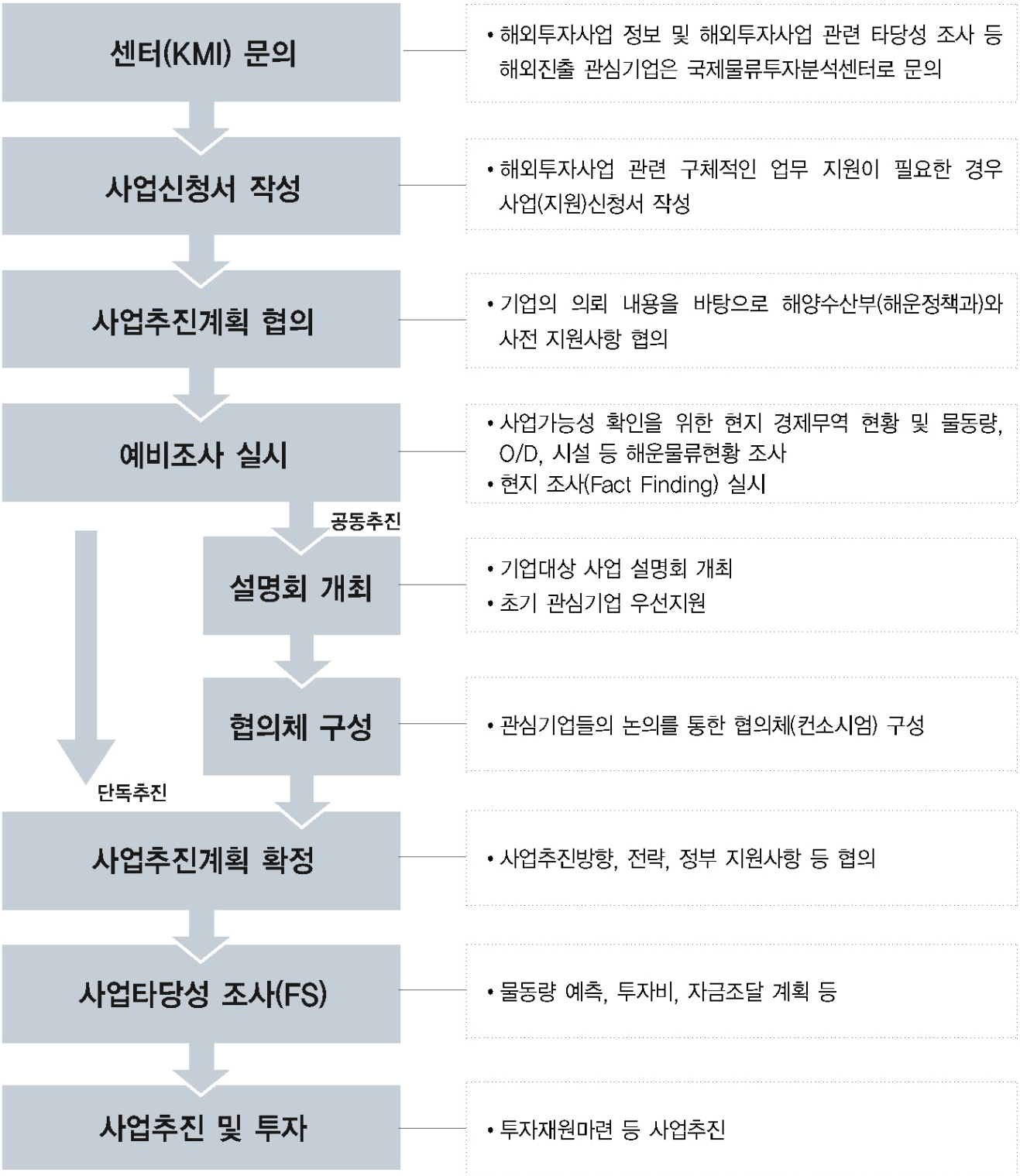
ㅇ Cathay Pacific은 2013년 4사분기부터 홍콩과 멕시코 과달라하라 간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작

- Cathay Pacific은 현재 북미 10개 지역과 전 세계 42개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용, 글로벌 항공화물 서비스를 제공
- Cathay Pacific은 2013년 4사분기부터 홍콩과 멕시코 과달라하라 간 노선에 Boeing 747-8F를 주 2회에 투입, 홍콩-과달라하라 간 항공화물 서비스를 시작
- 남아메리카 항공화물 시장에서 Cathay Pacific이 제공하는 첫 번째 운송 서비스임
- 홍콩과 과달라하라 간 항공화물 운송을 통해 Cathay Pacific은 홍공과 멕시코 간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첫 번째이자 유일한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확보함
- Cathay Pacific은 홍콩-과달라하라 간 항공화물 운송을 통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시장과 남아메리카 시장 간 항공화물 수요를 흡수함으로서,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시장 내 글로벌 리더로서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3.7.22.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